

“공공비축미 폐지” 전국서 벼 악적시위

영광 등 전국곳곳 투쟁

경찰과 몸싸움 연행도

26일 전남도청앞 집회

전남지역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일제히 악적투쟁을 벌였다.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순천시를 비롯해 영광·회순·장흥·강진·영암 등 7개 시·군 농민회가 지역별로 시·군청과 농협앞에 총 4000여가마(40kg들이)의 벼를 쌓는 악적시위를 벌였다.

이날 순천시와 화순군 농민회는 시·군청앞에 40kg들이 포대 400개와 300개를 각각 아적했다.

또 영광에서는 800~1000kg들이 톤백(Ton Bag) 28개를 쌓았으며 ▲ 장흥 30개 ▲영암 30개 ▲강진 15개 등을 적재했다. 악적시위는 10일 보성·11일 구례·함평, 12일 나주·해남 등지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영광군 농민회는 군청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하는 삽발식을 가진 후 악적투쟁을 벌였다.



영광군농민회 회원들이 9일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영광군청앞에 800~1000kg들이 톤백(Ton Bag)을 아적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를 연다.

이 과정에서 쌀겨를 담은 톤백을 소각하거나 이를 말리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농민 2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박행덕 의장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생산비에

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 산 비축미까지 반값으로 풀어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를 비준해 한국 농업을 맡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농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FTA 저지 3차 베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전농 광주·전남연맹도 오는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집회를 열 계획이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전기차 2차 선도도시 광주시 최종 선정

광주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2차 선도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선도도시 사업’은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기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운행 모델에 따른 실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에는 광주를 포함한 충남 당진, 경남 창원이 선정됐다.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비 등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i PLUG)를 중심으로 300여대를 구입해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총 전기 320여 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음식물쓰레기 배출 줄었다

3년새 일 평균 535t→477t…1인당 생활폐기물 0.96kg

광주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477.1t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하루 평균 배출량이 각각 534.9t과 487.3t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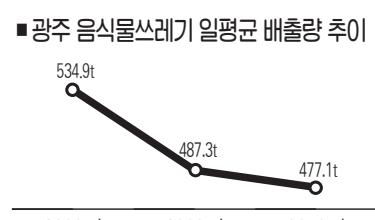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배식판을 도입해 음식물이 남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기업과 학교, 병원, 호텔처럼 음식물 쓰레

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곳을 대상으로 특화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와 압축해 물기 등을 배내는 ‘쓰레기 감량기’를 50여대 보급한 것도 음식물쓰레기 감소의 이유로 보고 있다.

반면 광주지역에서 배출된 일반폐기물은 지난 2008년 888.8t에서 2009년 942.7t으로 54t가량 늘었다가 지난해는 936.9t으로 6t가량이 줄었다.

광주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일반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0.96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생활폐기물(하루



1414t) 처리현황은 재활용이 897.6t(일반폐기물 420.5t, 음식물쓰레기 477.1t)으로 가장 많았고, 매립 266.6t, 소각 249.8t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 2008년 347.8t에서 2009년 384.7t 그리고 지난해 420.5t으로 늘어난 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지난 2008년 534.9t, 2009년 487.3t, 지난해 477.1t으로 감소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울경찰청장 이강덕·경찰대학장 장홍출신 강경량

치안정감 인사…경대 출신 장악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지방경찰청장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가 9일 전격 단행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장에 이강덕 경기청장을, 경기청장에는 이철규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대학장에 강경량 전북경장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18면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유임됐으며,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부

산청장에는 서천호 현 청장이 승진 배치된다.

이성규 현 서울청장과 손창완 경찰

대학장은 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량 경찰대학장 내정자는 수사와 기획 등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으며 조현오 경찰청장 청문회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에 내정된 5명의 치안정감을 지

역별로 보면 이강덕 서울청장이 경북 영일, 서천호 부산청장이 경남 남해 출신으로 각각 TK와 PK로 꼽힌다. 박종

준 경찰청 차장은 충남 공주, 이철규 경기청장은 강원 동해, 강경량 경찰대학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5명의 치안정감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대 출신이 4명(1기 3명, 2기 1명)

으로 경찰 수뇌부를 잡았으며 이철규 경기청장이 유일하게 간부후보 출신으로서 명맥을 유지했다.

경찰은 이달 내에 치안감과 경무관급, 내달 중에 총경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경정 이하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짜장면 값도 안되는 결식아동 급식비

<4000원>

<3000원>

물가상승 불구 7년째 동결…현실 맞는 예산 절실

물가상승에 따라 식음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물가 인상 등 현실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정병문(민주·비례) 의원은 9일 열린 광주시 여성청소년 나이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7년째 동결돼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가 한 달 3000원으로 7년째 동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 납품과 도시락 배달이 기피되고, 대표적인 서

면 한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빈곤층이 늘고 있지만, 결식아동 지원은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3년여 동안 광주지역 물가나 음식가격 인상 폭은 최대 20%에 달하고 있으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한 달 3000원으로 7년째 동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 납품과 도시락 배달이 기피되고, 대표적인 서

민음식인 짜장면마저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결식아동은 2만 1969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북구가 767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산구 5974명 ▲서구 3771명 ▲남구 3124명 ▲동구 1425명 순이다.

올해 광주시의 아동급식 예산은 43억3700여 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부합동 평가에서도 부진과 보완이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합당한 예산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급 1월 접수

7급 5월 접수

9급 2월 접수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 올해와 비슷

■2012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차	2차	3차(면접)	합격자 발표
5급 공채	1.25~30	7.3~7	11.16~17	11.28	
		2.25	8.7~11	12.1	12.11
		4.19~21	6.15~16	6.22	
7급 공채	5.14~18	7.28	11.1~3	11.21	
9급 공채	2.1~8	4.7	9.4~8	9.28	

된 최종 임용시험 계획은 내년 1월 2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50년 전통·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 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화 227~7575

이 이 치 료 치 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5-중-9092호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빙의·신병)

최면요법으로
복수한 원인이
가능합니다!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시스템 · 100% 신용·장기 대출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1년 6% 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 자도 해당